

News

4대 은행 자영업 대출 또 4조 급증

데일리안

지난달 말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232조9046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3조7165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코로나19 국면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빚으로 경영난을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해석

옵티머스·라임등 5대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매일경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헤리티지 등 대규모 환매 연기된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 연기 된 펀드 규모는 6.8조 이 중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펀드(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의 비중이 42%(2조8845억원)

하나금융, K-뉴딜·혁신금융에 83조원 공급

매일경제

하나금융그룹이 2025년까지 K뉴딜·혁신금융 총공급 목표를 기존 60조원에서 23조원 증가한 83조원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K뉴딜과 혁신금융 분야에 26조원 규모 대출과 투자를 실행했다. 이는 연간 공급 목표인 12조원 대비 212% 초과 달성한 수치

캐뱅크, 수신 잔액·가입자 '쑹'...업비트 제휴 효과?

뉴시스

캐뱅크의 지난 2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약 6.84조로, 지난 1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이 4.5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월 한 달 동안에만 약 2.34조원이 불어난 것

가입자 수 역시 상승 곡선을 보인다. 캐뱅크의 가입자 수는 최근 3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월 122만명에서 올해 1월 247만명을 기록한 뒤 지난 2월 기준 311만명으로 증가

금융위, 개인 공매도 확대 위해 증권사 대주금액 절반만 계

연합뉴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꼭 찬 탓에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금융당국이 한도 계산 시 대주(주식 대여) 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공여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왔지만, 앞으로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따로 계산하게 된다.

'IPO 광풍' 1분기에만 150조...대어는 대기중 "카뱅·카페 이어 LG에너지까지"

아시아경제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IPO 시장에 나온 기업(스팩·리츠 제외)은 모두 24개, 이들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 몰린 돈은 총 149조9966억원으로 집계
이는 1년간 100조원이 되지 않았던 2019년(96조8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IPO 시장에 '광풍'이 불었다고 평가받은 지난해(295조5000억원)의 절반도 1분기 만에 넘었다.

설계사 안 만나도 보험가입 가능...금융위 음부즈만 13건 개선

뉴스1

고객이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번호, CVV 같은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용 시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과 관련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韓·日보험산업, AI 도입 속도 빨라진다

전자신문

보험산업에도 인공지능(AI)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때 적절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 업무에 전문인력 대신 AI가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AOS(자동차 수리비 산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사진으로 예상수리비를 산출하는 AOS알파를 서비스하고 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